국화천지 추억천지 가을낭만 정겹구나

함평천지 '2014 대한민국 국향대전' 24일~11월 9일

	■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주요 행사 일정			
	행사명	기간	장소	
	함평단호박 전국 요리 경연대회	10월 25일	함평여중 다목적 강당	
	광주·전남 명품 한우축제	10월 25~26일	황소주차장	
	제4회 명품 한우요리 경연대회	11월 1일	함평여중 다목적 강당	
	오당 안동숙 미술대회	11월 5일	축제장 내	
	서각작품 전시회	축제기간 내내	금호아시아나관 2층	
	국화차 및 꽃차 전시회	"	"	
	8·15 광복절 기념 전시회	<i>"</i>	군립미술관 강당	
	문인화 작품전	<i>"</i>	군립미술관 창작실	
	문학 동인 자미 사회전	<i>"</i>	"	
	실버 전시전	"	군립미술관 1층 로비	
	전통자수와 매듭 전시회	"	주제 영상관 1층 R&D관	
	추사 김정희 특별전시	10월24~11월30일	군립미술관 기획전시실	



함평군은 오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17일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2014 대한민국 국향대전'를 연다. 다양한 공연, 한우대축제, 전시회 등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 줄기서 1538송이 꽃피는 '천간작' 등 분재 전시 밸리댄스 등 각종 공연·한우축제 등 다채롭게 열려

신(神)은 맨 처음에 코스모스를, 마지막으로 국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 매화가 한해의 시작을 알린다면 국화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꽃이기도 하다. 가을에 접어들며 초목은 시들 지만 국화는 서릿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꽃을 피우기에 인고와 절개의 상징으로 손꼽기도 한다.

미당 서정주(1915~2000) 시인은 '국화 옆에서'라는 시에서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라고 찬미했다.

함평에서 형형색색 국화의 향연(饗宴)이 펼쳐진다.

함평군은 오는 24일부터 11월 9일 까지 17일간 함평군 함평읍 함평엑스 포공원에서 '2014 대한민국 국향대

전'를 연다.

THE PROPERTY OF THE PROPERTY O

◇한줄기에서 1538송이 국화꽃 만개= '국화향기 그윽한 풍요로운 함평천지!'를 주 제로 열리는 이번 국향대전은 관광객 동선 주요 길목에 대형 국화작품과 기획 작품을 배치한 야외 전시와 수준높은 국화 분재 작 품을 관람할 수 있는 실내 전시,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 로 나눠 열린다.

축제장 중앙광장 입구에는 대형 독립문 조형물을 조성하고, 마법의 성과 9층 꽃탑 등 대형 기획작품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 한 줄기에서 1538송이의 꽃이 피는 '천 간작'과 300송이 내외의 '다륜대작'을 비롯 해 수백여 점의 분재 작품도 전시하다

특히 올해에는 중앙광장에 엄마 코끼리·아기 코끼리를 비롯해 기 린, 호랑이, 코뿔소 등 국화로 만든 동물원을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한우와 단호박 등 지역 농·특산물을 테마로 한 다양한 특별행사도 펼쳐진다.

25~26일 이틀간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회가 주최하는 '제3회 전남 명품 한우 대축 제'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함평천지 한우 와 국화의 향연'을 주제로 함평천지 한우의 브랜드와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한우 OX 퀴즈, 밸리댄스 공연, 레크리에이션, 통기타 연주 등 각종 공연과 함께 한우시식행사, 한우 할인판매행사 등이 이어진다

25일 축제장 옆에 위치한 함평여중 다목 적 강당에서는 함평 단호박의 인지도를 높 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2014 함평 단호 박 메뉴개발 전국 요리경연대회'가 열린다.

◇관광객들에게 가을정취 선사=11월 1 일에는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제4회 전국 명품 한 우요리 경연대회'가, 5일에는 함평출신 한 국화가 오당(吾堂) 안동숙 화백의 뜻을 기 리고 축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오당 안동 숙 미술대회'가 개최된다.

이 밖에도 축제 기간 내내 군 립미술관 특별전시회와 서각작품 전시회, 문인화 작품전, 시화전과 사 진전, 통기타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마련돼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 리를 제공한다. 지난 10일부터 11월 12일 까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국향대전 홍 보를 위한 국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전 시기간 동안 함평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터도 함께 운영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올해 '대한민국 국향대 전'은 '나비축제'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며 함평을 널리 알리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라 며 "위상에 걸맞은 수준 높은 작품과 풍성 한 프로그램으로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에 게 가을의 낭만과 추억을 가득 선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추사 김정희, 남도에서 만나다

특별전 24일~11월 30일···서예 등 70여점 전시

올해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추 사 김정희(1786 ~ 1856) 선생의 예술 혼이 담긴 특별 기 획전시회가 단연 돋 보인다.

함평 군립미술관 은 국향대전 개막을 기념해 24일부터 11 월 30일까지 37일간 '추사 김정희, 남도 에서 만나다'라는 주



수묵화 '도화도원도'

에서 만나다'라는 수 제의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추사 김정희의 서예 50여 점과 편액·문인화·간찰(簡札 = 편지) 20점이 선을 보인다. 주요 전시작품으로 추사체의 원류가 되는 서한시대 예서의 필의를 담은 '추사필첩', 목각현판 '무량수각', 수묵화 '도화도원도' 등이 있다. 함평 출신 고미술 소장가인 안백순 이헌서예관 관장이 '예향 함평'을 드높이기 위해 일평생 수집해온 추사 작품을 흔쾌히 빌려줘이번 전시가 성사됐다.

작품들은 ▲시기별 추사 글씨와 문인화 등 서예가와 문인화가로서의 삶을 보여는 '서화가 추사의 삶' ▲경학사상을 담은 '서예와 문학, 경학사상' ▲주도서 가족과 제자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은 '추사가 보낸 편지' ▲다산 정약용 선생과 초의선사, 소치 허련 등 교유관계를 보여준 '추사와의 만남' 등 소주제로 나눠 전시된다.

한편 추사 김정희 선생은 청나라의 고증학을 기반으로 한 금석학자이자 실사구시의 학문을 제창한 실학자이며, 중국과 우리나라의 서예를 녹여낸 '추사체'를 창시한 예술가이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